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BK 연구교수)
jdchun@snu.ac.kr

문화속 수의학(5)

전염병을 그리다; 회화 속에 나타난 고대 전염병 (Paintings and the Plague)

연일 계속되는 신종 플루 감염 소식에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다. 그 위세가 보통의 독감과 비슷하긴 하지만 학자들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전 세계 유행을 들어 늦가을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염려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퍼지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바이러스의 구조마저 밝혀진 21세기, 지금도 플루 감염이나 백신이며 치료약에 대한, 혹은 면역강화 식품들에 대한 수 많은 '신화'들이 떠돈다.

수의사인 우리들조차도 가끔은 비과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마다 씁쓸하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동기는 '공포'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회화 중에는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묘사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 비극의 현장은 전쟁으로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과 비교해도 그 참혹함이 결코 덜하지 않다.



그림 1. 아테네의 역병 (Plague of Athene), Michael Sweerts (1618 - 1664)

이 그림은 플랑드르 화가 스베르츠(Michael Sweerts)의 그림 '아테네의 역병'으로 1650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창백한 엄마의 시체, 그 옆에서 슬퍼하는 가족과 엄마를 부르는 아기의 모습, 죽어가는 병자와 아무렇게나 버려진 주검들, 혼란과 슬픔과 공포가 가득 찬 이 도시는 이미 더 이상 화려한 아테네가 아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남긴 기록에는 그 참담한 전염병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렘노스 부근 여러 곳에서 이미 발생했다고 말들 했지만 이런 정도로 극심한 역병은 아닌 데다 치사율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 드러난 원인이 없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도 모두 갑자기 심한 열이 나고 목이나 혀 안쪽과 눈이 충혈되고 염증이 생기고 급기야는 출혈이 있고 비정상적이고 악취가 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후에는 콧물과 선목소리가 증상으로 나타

나고 통증이 가슴까지 번지면 심한 기침을 해댔다. 위장을 공격하면 구토하고 의사들이 이름 붙인 모든 종류의 담즙이 나오고 고통이 심해졌다. ... 실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고통이 환자들을 고문했다.

대부분의 경우 내장에 염증이 생길 때까지는 7~8일이 걸렸고 ...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병은 점점 내장기관으로 퍼지고 극심한 궤양으로 인해 설사를 하고 쇠약해지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 시체를 먹은 새와 짐승들은 이들이 매장도 되지 못한 채 바닥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먹기를 포기하거나 죽었다. 이 증거로 모든 종류의 새들이 사라졌다. ... 사람들은 서로 방문하기를 꺼려했고 ... 시체들은 그냥 두어서 썩어갔다. ...”

이 전염병으로 아테네의 전성기를 구축했던 정치가 페리클레스를 비롯해 아테네 군인들의 1/4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장례 의식 따위를 지킬 겨를이 없었고, 공포 속에서 오히려 오늘 하루가 남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쾌락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그 혼란은 바로잡은 방법도 없었다. 병마가 지난 이후에도 아테네는 다시 그 영화를 되찾지 못했다.

현대 의사학자들은 이 질병을 선페스트, 천연두, 혹은 인플루엔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그 어떤 질병이었던 당시의 두려움에는 차이가 없었으리라.

고대의 동물 전염병 역시 인간에게는 크나큰 '재앙'이었다.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는 이집트

에 내려진 야훼의 열 가지 재앙을 전한다. 나 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로 온 땅을 덮고, 땅의 티끌이 빈대로 변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고, 등애가 사람들을 쏘아대는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풀어 주지 않자 야훼는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의 모든 생축을 죽게 만들었다.

영국의 수채화가인 윌리엄 터너가 그려낸 이집트의 다섯 번째 재앙(The Fifth Plague of Egypt)을 보자.

풍경화에 강한 작가였기 때문일까. 두 팔을 올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그야말로 재앙을 연출하고 있다. 정면에 죽어 넘어진 동물의 말, 소, 개의 모습은 삭막한 공포 그 자체이다.

시대가 훨씬 앞선 16세기 출간된 목판본에서 이 재앙은 붉비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죽었거나 쓰러져 가는 동물들 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는 신의 분노이며, 별이니만큼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 두면 ... 여호와와 그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낙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 (출애굽기, 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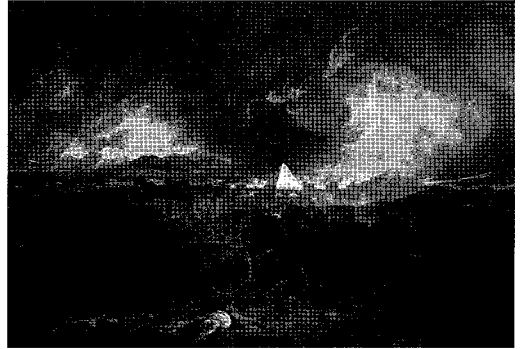


그림 2. 이집트의 다섯 번째 재앙(The Fifth Plague of Egypt, 1800),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1775-1851)



그림 3. 이집트의 다섯 번째 재앙, 1517. (Landscape showing corpses of men and cattle killed by plague; illustrates Vergil, Aeneid iii, 137-142, Woodcut, Wellcome Library, London)

윌리엄 맥닐(William H. McNeill)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1998, 한울)’에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원체에 의한 것을 ‘미시기생’, 인간과 동물, 인간과 인간 등 대형 동물 사이의 기생을 ‘거시기생’이라고 구분했다.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 하면서 이들의 역학 관계가 좀 더 복잡해 졌고 수 많은 전염병들은 인간 공동체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18세기 우역(rinderpest)이 유럽을 휩쓸었던 때 서유럽에서는 1711년에서 1714년까지 150만 마리의 소를 질병으로 잃었고 1720년 대 초반까지 300만 마리의 소가 희생되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화가들에게도 이 전염병은 기억할 만한 큰 사건이었다. 18세기 네덜란드의 한 화가가 그린 삽화에 이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림 속 소들은 폐죽음을 당했고 사람들은 관리로 보이는 마차를 탄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외양간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소를 끌어내는 농부는 소를 전염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데려가려는 지도 모르겠다. 이 시기 사람들은 더 이상 전염병을 신의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6세기 베로나의 의사인 지롤라모 프라카스토로(Girolamo Fracastoro, 1483-1553)가 '전염, 전염병과 그 치료에 대하여(Decontagioibus et contagiosis morbis et curatione libri III)' 라는 책을 통해 소개한 '질병의 씨앗(Seminaria morbid)', '전염의 씨앗(Seminaria contagionis)' 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닛 놓고 이 재앙을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의사 란치시(Giovanni Maria Lancisi, 1654-1720)와 라마찌니(Bernadino Ramazzini, 1633~1714)는 죽은 소를 부검하여 우역의 병리를 연구하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란치시는 우역에 걸린 소의 이동 금지하고 감염 가축을 모두 도살하는 등(test and slaughter)의 조치를 취했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근대 동물 전염병 방역의 시작이다.



그림 4. 18세기 네덜란드의 우역 (Runderpest in Nederland 18e eeuw) Jacobus Eussen

중세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전염병을 역(疫)이라는 단어로 총체적으로 표현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우역(牛疫)의 경우 17세기 후반에 그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참상을 회화로 남긴 화가는 없다. 현종 때의 우역 발생 양상을 보면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며 그 시작은 1665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후 남쪽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겨울의 시작과 함께 전국으로 퍼졌다. 다음해 여름까지 사람들 사이에도 전염병이 퍼지고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림이 없더라도 그 참상은 짐작할 만 하다. 1671년 여역(癘疫)은 가라 앉았으나 우역은 점점 더 치성하고 있었다.

“경상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하였다. 선산(善山)렛뫼 永川 등 30여 고을에 전후 죽은 소가 6천 4백여 마리였다.”(조선왕조실록 현종 6년, 1665, 11월 5일)

“전라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하여 전후 폐사한 것이 1천 3백여 마리에 이르렀다.”(조선왕조실록 현종 6년, 1665, 11월 21일) 조선왕조실록

In this ground
Are
Buried
Fourty
Head of cattle
Which died of
Murrain
In the months
Of Dec 1865
And Jan 1866
The property of
Richd Bourne
Of muclestone
Tenant to the
Right hon
Hungerford
Lord Cre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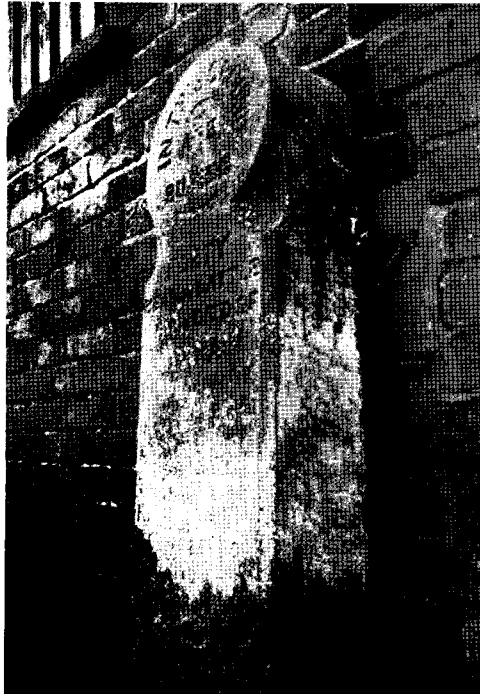


그림 5. Cattle Plague Memorial, Muclestone Staffordshir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질병으로 죽은 소들을 묻어서 방역을 하고자 세워놓은 표지인지 아니면 질병에 희생된 소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달게 받아야 하는 벌이었든, 혹은 병원균의 미시기생과 인간 경제 공동체의 거시기생 구조에 따른 변화이든, 고통을 받다가 죽어간 동물들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염병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병

우리 욕 중에는 질병명을 포함한 것이 많다. ‘염병할’도 그런 욕 중 하나인데 서양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있다.

‘Murrain’이라고 하면 욕설이기도 하지만 소와 양의 치사율이 높은 질병, 즉 우역을 일컫던 말이었다. 욕을 검색한 것은 아니고 우역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다 재미있는 지역 정보 사진을 한 컷 찾았다.

영국 중부 스태포드셔(Staffordshire) 지역에 다음의 내용의 새겨진 비석이 남아있다. 1865년 영국에 우역이 창궐했을 때 많은 소들이 희생되었다.

축과 감염 의심축을 모두 도살하거나 매장한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역사 속의 전염병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끊임없이 전염병에 시달리고 죽어갔던 동물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비석의 의미는 후자였으면 좋겠다. 